



오늘의 말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14:21

오늘의 주요 기사

2-3 종교개혁 특집
4-5 키르기스스탄 비전트립
6 세례자 소감 및 결단

7 입교자 결단
8 목사안수 소감
8 학원선교주일 묵회서신

9 장로회
10 중보기도부 / 함께걷는길
12 섬김과나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고백이 교회를 새롭게 했다. 16세기 유럽의 차가운 돌성당 안에서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르려 할 때, 한 수도사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들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불길처럼 번져 죽어가던 교회를 깨우고, 침묵하던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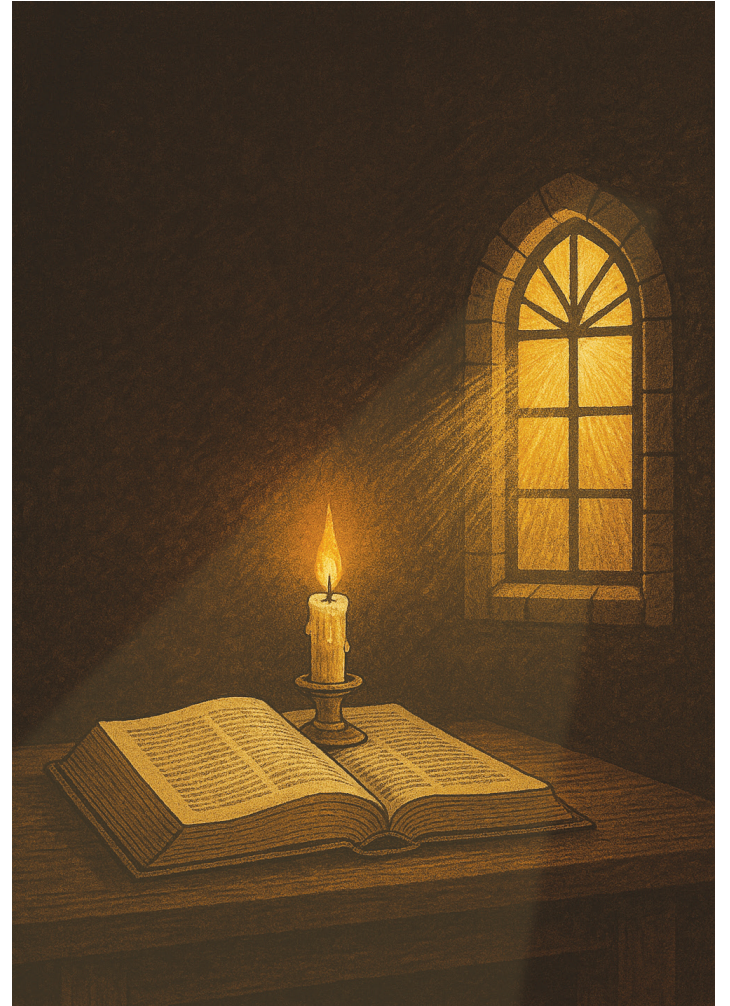
그날의 종소리가 아직도 울린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진리는 결코 낡지 않는다. 교회가 개혁을 외친 것은 새로운 제도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잊혀진 말씀을 다시 중심에 두기 위함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외침이 필요하다.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 말씀이 가려진 세상 속에서 교회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야 한다.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빛을 좇기보다 말씀의 빛 아래 머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한 사람의 심령에서 시작된다. 교회가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한다. 내 가정, 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빛으로 선다. 세상 사람들이 ‘할로윈’을 즐기며 어둠과 죽음을 흥밋거리로 삼는 이 날에, 우리는 생명과 진리의 빛을 기념한다. 분장을 벗고 진리로 단장하며, 공포가 아닌 복음의 기쁨으로 세상을 밝히는 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의 참된 의미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_ 시편 119:105

이 말씀을 붙들 때 교회는 길을 잃지 않는다.

개혁의 불꽃은 한 시대의 혁명이 아니라 매일 말씀 앞에 서는 신앙의 자세이다. 빛으로 다시 서는 교회, 은혜로 새로워지는 성도, 말씀으로 회복되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개혁의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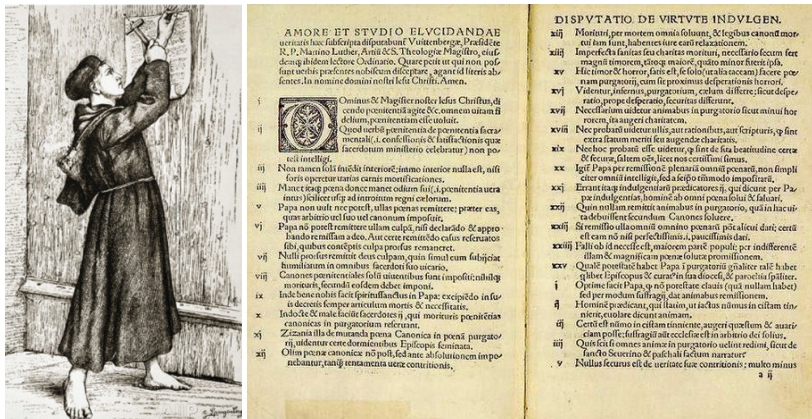


종교개혁주일특집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 말씀 위에 서는 참된 개혁

종교개혁의 원인과 의미

16세기 초 유럽 교회는 심각한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성당 건축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면죄부’를 팔았고, 신앙은 구원의 은혜보다 돈과 권위에 종속되었습니다. 이에 독일 비텐베르크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교회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고자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내걸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제도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근본을 회복하려는 복음 중심의 영적 개혁운동이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 사진

종교개혁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본래 자리인 복음과 말씀, 사도적 신앙으로 되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며,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과 삶의 기준임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신자가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의 갱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진 사명입니다.

말씀에 따라, 성령 안에서 계속 개혁되는 교회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압축한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히 ‘변화하는 교회’를 뜻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이미 개혁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점검하고 갱신해야 한다”는 고백입니다. 즉, 교회의 “영원한 자기비판의 자세”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개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기준은 문화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혁의 동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개혁은 인간의 계획이나 제도개선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교회를 깨우시고, 교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은 교회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새로워지려는 영적 태도를 뜻합니다. 이는 교리나

조직을 자주 바꾸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계속 정화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갱신되는 교회를 지향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교회는 이미 개혁된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고쳐야 합니다. 변화 자체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변화, 곧 회개와 순종의 갱신입니다. 참된 개혁은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으로 교정되는 일입니다.

왜 교회는 ‘보수적’으로 보이는가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보수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보수’는 정치적 이념의 보수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는 신학적 보수입니다. 교회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진리가 인간의 사상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역사, 회개와 은혜의 교리는 시대에 따라 수정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보수성’은 ‘진리 보존의 의지’이며, 세상의 흐름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신앙의 충성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보수를 정치적 보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정당이나 이념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통합 교단은 “신앙의 보수는 정치적 보수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적 전통을 지키며 개혁을 실천하는 길

참된 개혁교회는 보존과 갱신이 조화를 이룹니다. 그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회복하는 교회)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유일한 기준이며, 모든 판단의 잣대입니다.

(전통과 시대의 균형을 잡는 교회) 과거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귀하지만, 그 이유를 묻지 않으면 형식만 남습니다. 반대로 ‘새로움’만 좇으면 복음의 본질을 잃습니다. 전통을 말씀의 빛으로 재해석하고, 오늘의 문화 속에 복음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구조와 문화의 갱신을 이루는 교회) 개혁은 교리만이 아니라 교회의 실제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 리더십, 재정, 봉사, 조직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합한가?”를 끊임없이 물을 때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정치와 문화에 대해 분별하는 교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하지도, 휩쓸리지도 않아야 합니다. 정치적 입장을 복음과 동일시하는 순간, 교회는 복음의 중심을 잃습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 모든 개혁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열심만으로는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중심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교회는 비로소 참된 개혁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실천하는 개혁

교회의 개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며, 신앙이 전수되고 자라나는 터전입니다. 루터는 “가정은 신앙의 학교요, 부모는 가정의 목사”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교회의 개혁은 뿌리에서부터 새로워집니다.

(말씀으로 숨 쉬는 가정) 가정예배, 식사 전후의 감사기도, 자녀와 함께 드리는 말씀 나눔은 개혁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습관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사랑과 용서가 흐르는 관계) 가정의 개혁은 제도보다 관계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품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할 때 복음의 생명이 흐릅니다. 신앙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섬김으로 증언되는 가정, 그것이 개혁의 첫 현장입니다.

(세대가 함께 자라는 신앙의 전통) 가정은 다음 세대가 복음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세대를 이어주는 신앙 교육이야말로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개혁입니다.

개인이 실천하는 개혁

교회의 개혁은 결국 성도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나부터 개혁되어야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마음이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개인) 개혁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며,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정직과 책임의 삶) 개혁은 신앙고백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직장, 학교, 사회 속에서 정직과 공의를 지키는 삶이 오늘의 신앙 개혁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하게 일하고, 약자를 돌아보며, 작은 일에도 성실한 태도를 지키는 것이 개혁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삶) 종교개혁의 정신은 ‘세상을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와 선택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주일과 할로윈데이를 바라보는 신앙의 분별

종교개혁주일은 해마다 10월 31일 전후로 지켜집니다. 우연히도 이 시

기는 세상에서 ‘할로윈데이’로 불리는 날과 겹칩니다.

오늘날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분장과 축제, 놀이 문화로 즐기는 할로윈은 겉보기엔 단순한 행사 같지만, 그 기원은 죽음과 어둠, 초자연적 영혼을 기리는 이교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되, 죽음과 어둠을 흥미로 소비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 세상의 문화에 무비판적으로 참여하기보다, 그 의미를 분별하고 복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는 “이 날은 귀신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 종교개혁의 날”임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둠의 상징이 아닌 빛과 진리의 의미를 배우고, 루터와 칼빈처럼 말씀을 지킨 믿음의 용기를 배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자녀들에게 “세상을 따라가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붙드는 날”임을 가르치며, 할로윈의 상징 대신 말씀과 복음의 기쁨으로 세상을 밝히는 신앙적 대안 문화를 세워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은 단지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복음의 빛으로 서야 함을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결론 -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삶

종교개혁은 과거의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의 부르심입니다. “개혁된 교회”라는 자부심이 안주로 변하지 않도록, “변화만이 개혁”이라는 생각이 말씀의 중심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워지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개혁은 오직 말씀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갱신이어야 한다.

루터의 개혁은 어둠을 거슬러 복음의 빛을 붙든 사건이었다.
오늘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문화보다
말씀의 진리를 선택할 때, 개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_ 로마서 12:2



비전트립
키르기스스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 키르기스스탄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깊이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다른 자리에서 살아가던 팀원들은 설교와 의료, 태권도, 가정심방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그 은혜로운 여정 속에서 각자가 만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담은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며 준비한 것이 연합신학교 수련회에서 두 번의 강의와 설교였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들이자 신학교 교수님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작년까지 유창하게 통역을 해주셨던 현지 목사님께서 사정이 있어 이번에 처음으로 어떤 청년이 통역한다는 것도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한 결과 탁월한 통역과 더불어 수강자들의 경청 뿐만 아니라 강의 후 주옥같은 질문과 토의가 이어지면서 기대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 가운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아멘”을 통해 열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의 교회 비전트립 팀도 한마음이 되어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대혁 목사



삶으로의 선교 - 치과

오랜 갈망 끝에 수많은 개인적인 난관을 넘어 키르기스스탄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왜 그곳이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비전트립을 신청했지만 그곳을 두고 기도할 때면 그저 눈물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어쩌면 땅끝일지도 모를 그곳, 땅 속의 땅, 땅의 깊은 중심, 그 땅을 향한 알 수 없는 애통함이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그 땅을 밟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펄박에 굴하지 않고 아름답게 맺어져 가는 열매인 성도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만났고, 복음을 위해 제 삶을 그 척박한 땅에 옮겨 심은 선교사님들의 지나온 시간을 보았습니다. 메립치과, 카리스마치과, 엘딕클리닉을 거점으로 의료전문인 사역에 평생토록 헌신해오신 여러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모두 주님께 내어드렸으면서도 담담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자 숙연해지며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과 그 삶 속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빛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먼저 발 가는 자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1,822개 마을에 복음의 통로가 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함께 중보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박주향 집사



어르신을 공경하는 추수감사절

카라콜 교회는 저 멀리 만년설을 이고 있는 산의 풍경과 바로 뒷마당에 사과 배 호두 등 온갖 과일이 한가득씩 열린 나무들이 한 샷으로 들어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원근각처의 가정교회로 지내던 성도들이 옵니다. 저희가 도착한 다음 날이 추수감사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예배실에는 이미 제단이 마련되어있었는데 막 밭에서 캐다 놓은 당근, 감자, 호박, 양배추와 뒷 마당에서 따다 놓은 조그만 사과, 배, 호두 등 소박한 추수감사절 장식이 정겨웠습니다.

청바지에 수트 차림 목사님의 기타 반주로 알아듣지 못하는 키르말 찬양이지만 성령으로 하나되어 우리 비전트립팀 모두 어느 곳에서보다 더 충만하게 찬양하였습니다.

예배 중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 교회의 어르신들이 앞에 나왔고 교회에서는 어르신들께 공경의 의미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고 앞으로 자자손손 예수님 잘 믿고 살자는 덕담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화목한 예배 중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이 보여 울격하였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예배였습니다.

박정은 권사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가 아니며 그들은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았다

세 조로 나뉘어 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모두 케레스와 그의 가족입니다. 암투병을 하며 가정이 어려운 중에도 두 딸과 아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케레스는 오십대 후반입니다. 비취책 미르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가정방문을 반겨주었습니다. 번역 앱을 통해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케레스가 도움받았던 한국에 김권사님을 잊지 못한다며 서툰 발음이지만 정확히 이름 석 자를 발음하니 목사님께서 그 이름을 알아들으시고 단번에 한국으로 영상통화를 거셨습니다. 작은 화면에 낮익은 얼굴이 등장하자 케레스는 불편한 몸을 벌떡 일으켜 인사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케레스의 큰 키와 체구가 핸드폰 속 어르신 앞에 애가가 된 듯 어쩔 줄 몰라했고 사랑과 염려가 섞인 목소리로 안부를 물으며 통화 내내 웃음과 울음이 교차되었습니다. 한국에 김권사님은 갑작스런 전화연결로 당황하셨을텐데도 나이가 들어 건강이 좋지 못해서 키르에 가지 못했지만 늘 기도하고 있고 잘 지낸다 하셨습니다. 통화

비전트립 키르기스스탄

후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가져간 뜨개모자와 수세미를 보니 김권사님이 보낸 건 줄 알았고 그분은 예전에 키르지체들의 자립을 위해 뜨개질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시라고. 선생님이 더이상 키르에 오지 못하게 되니 자신이 뜨개질 모임을 이어받았으며 둘째 딸 파티마가 학비가 없을 때 학비를 보내주셨고 아플 때도 기도와 물심양면 도와 주셔서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와 만남이 있기까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국경을 오고갔던 선배들의 발걸음들이 있었음을. 그 사랑의 씨뿌림으로 이분들의 오늘이 있음을 알게 되는 가슴먹먹한 순간이었습니다. 윤경자 집사

카라콜 교회의 가정심방

주일예배를 마친 후 조를 나누어 가정 심방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우리 팀은 85세 시어머니도 계시고 8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었습니다. 출발 전 먼저 언어의 장벽을 어떻게 넘을까 걱정도 앞섰지만 다행히 김선교사님의 통역으로 서로 나누고 알아가며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함으로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머니와 부모님의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 옆에서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던 어린 소녀는 기도 제목이 “우리 집에 오셔서 너무 좋고 다음에도 꼭 왔으면 좋겠다”는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네에서 하나님 믿는 가정임을 숨기고 살아가는 상황이기에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음 날 심방 간 가정은 팀원들 모두가 함께한 훈훈한 자리였습니다. 무슬림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이혼당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사는 가정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이 잔잔한 울림이었습니다. 꼬마 주부의 해맑은 웃음과 눈망울에 우리의 마음은 녹아들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마음을 열어 준 그 가정에 오히려 과분한 사랑을 듬뿍 받고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땅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그 나라와 그 가정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김선희 권사



누구에게나 선물 같은 키르의 자연

교통체증이 심한 수도 비쉬켈을 벗어나니 도로공사가 한창인 곳이 많았습니다. 비쉬켈이 해발 850m이고 연합신학교 수련회 장소인 이숙쿨은 해발 1,622m였는데 보다 선선해진 기온 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주도 3.5배의 따뜻한 호수는 우리가 도시를 벗어난 이후 줄곧 함께 달렸습니다. 여름보다 설산이 더 선명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운슬이 반짝이는 호수는 지역마다 물 색깔이 다릅니다. 밤이면 드넓은 대지와 호

수 위 데크에서 밤하늘 별보기는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키르 어디를 가든지 텐산산맥의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넓은 밭에는 소보다 말이 많고 양떼들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넓은 밭과 이어진 민둥산 너머에 드넓은 초원이 펼쳐지고 뾰족한 산림이 넓은 평원과 계곡의 조화에 맞춰 절정을 이루다가 갑자기 좁은 협곡을 만나니 시야가 좁아진 곳에 입을 다물 수 없는 아름다움은 사진에 담을 수조차 없어 아쉬웠습니다. 그 곳 이름이 그레고리에브카 계곡입니다.

이숙쿨 동쪽은 알틴아라산 트레킹으로 한국에서 유명합니다. 국립공원 내 3,040m 스키장 정상을 곤돌라로 올라서 텐산산맥 공기를 가까이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멋지고 웅장한 자연을 접할 때 신묘막측하고 대단하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남쪽 이숙쿨과 인접한 나지막한 형형색색의 구릉지역은 ‘이야기’라는 뜻의 ‘스카’ 즉 스카스카계곡 또한 신비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자연만찬장에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드높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정상기 장로



삶으로의 선교 - 태권도

윤바나바, 김은비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은 태권도장 안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태권도장이라는 중요한 공간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그 날 그 공간은 따뜻한 햇살과 사랑이 가득하였고 저는 아이들의 맑은 눈과 건강한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십 년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삶은 그의 태권도 발차기에 켜켜이 쌓여 있을 것인데, 그의 무릎과 허리의 통증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고 싶었으나 팀원들께 함께 기도하자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다리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이 어떠한 지 저는 다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쓰시고자 하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이 태권도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오세원 안수집사



세례입교
세례자 소감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자녀로

신앙생활 시작 시기와 계기

어릴 적 기독교 유치원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고 유치원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만화책을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어린 시절 장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 뒤 친구들과 집 근처 교회를 다니다 사춘기쯤부터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홀로 기도만 하는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성인이 된 후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는 항상 하지만 ‘내가 맞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시려는 걸까?’ 하는 궁금증과 답답함에 근처 교회를 다시 찾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파 간 곳에서 ‘건물을 더 지어야 하니 헌금을 더 많이 내셔야’라는 말씀만 한 시간 내내 듣고,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돈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다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나고 남편 따라 주님의교회에 왔을 때, 올바른 가치관을 알려주시는 이상적인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께서 교인 등록과 여러 교육들을 받아보라고 권해주셔서 세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으며 새롭게 알게(깨닫게) 된 것

혼자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는 자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마냥 보살펴주시고 예뻐만 해주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기도 하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행동에 대해 더 성찰하는 순간들이 늘었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다짐

제가 닮고 싶어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따뜻하고 단단하며 선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크리스천이라는 점입니다. 시부모님께서 교회 등록과 교육들을 권하셨을 때, 제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권하신다 하더라도 아마 실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저런 모습이 있구나,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셨기에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에 꾸준히 교회를 다닐 결심이 섰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누군가가 저를 통해 하나님을 궁금해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자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전수빈 성도

세례입교
세례자 결단

다시 태어나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모습 이대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경애 성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크리스천으로 살기 원합니다.

김원규 성도

힘들고 무언가를 구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쁨 때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박신애 성도

교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잘못된 믿음으로 다른 것을 배척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승재 성도

사도 바울의 열한 큰 확신으로 가득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매일 제가 담대히 일어나게 하소서.

여재홍 성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수린 성도

예수님의 열 두 제자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정환 성도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전수빈 성도

주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된 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나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승민 성도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따르며, 항상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 가족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홍나래 성도

하나님께서 항상 제 곁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강다혜 학생

전 세계의 혼란과 갈등,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세요. 모든 교회 성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권주원 학생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김서희 학생

가족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승주 학생

건강하게 일 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정준 학생

저의 믿음이 항상 진실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다연 학생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사람들에게 먼저 베푸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조다현 학생

가족들이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제 삶에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최윤우 학생

세례입교
입교자 결단

부모의 신앙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개인의 이익이나 세상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진정으로 원하고, 이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김하은 성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김현이 성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함과 감사함이 가득한 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소중히 여기고 주신 재능을 잘 키워가며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예진 학생

항상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김승연 학생

앞으로 닥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는 바른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김준영 학생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 이심을 기억하며 자녀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김지안 학생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김지을 학생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이 생기더라도 항상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주 교회를 다니며 항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현준 학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혜원 학생

학교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특정 날만이 아니라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찾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박기은 학생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박지수 학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박주아 학생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선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서태민 학생

많은 혼란이 있는 가운데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송민균 학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예수님이 삶에 주인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송태균 학생

우리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어승혁 학생

나와 관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유예준 학생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를 알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 주변에 있는 가족, 이웃,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섬기게 해주세요. 윤주훈 학생

앞으로도 믿음이 날마다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장지훈 학생

하나님 안에서 성실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길 원하고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하준 학생

우리나라에 있는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구주로 직접 영접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최현성 학생

세례입교
축복의 말

새 생명으로, 믿음의 길 위에서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물로 씻음을 받는 순간은 옛 자아를 벗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시작입니다.

입교는 어린 시절 부모의 믿음 안에 있던 이가 이제 스스로의 믿음으로 서겠다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이는 신앙의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성숙의 시작이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사명을 자각하는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삶의 걸음을 축복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믿음의 가족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공동체의 한 지체입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오늘의 감격이 일상 속에서도 이어져,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함줄함울

목사안수
소감

사랑으로 부르시고, 만남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먼저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1년, 사랑으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다시 저를 세운 첫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저의 변하지 않는 목회 철학 중 하나는 '친구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란 희노애락(喜怒哀樂)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며 한 영혼을 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말겨진 양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목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목회는 말씀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사람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사역의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제 삶 속에서 살아내며, 교회와 가정, 세상 어디에 서나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한 사람으로 서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 신앙과 사역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한 사람으로 서는 것, 그리고 그 삶으로 말겨진 양들과 동행하는 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찬양 목사 / 청소년숲 중등부

총회
학원선교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학원선교 활성화 위한 기도와 관심 절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 69노회와 9,446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눈부신 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갈등과 단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으며, 이는 사회는 물론 교회 공동체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와의 단절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기이며,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과 기도를 요구합니다.

제110회기 총회의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사 55:7, 엡 4:31-32)'입니다. 우리는 용서에서 사랑과 화해를 시작합니다. 이 길을 통해 공동체와 이웃을 살리는 일꾼을 세우고, 다음 세대와 공감하는 교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용서와 화해의 실천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듯,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은 '학원선교주일'입니다. 이날은 복음의 사각지대인 학교와 학원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청소년·청년 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기에는 학원선교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다음 세대들은 교회와 더 멀어졌고, 복음화율 3%라는 통계는 우리 모두에게 엄중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회복의 능력입니다. 총회 주제 로고에 담긴 푸른 손과 주황 손, 그리고 그사이의 십자가는 용서와 화해, 회복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총회는 학원선교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학원선교 전담목사 파송제도'를 결의하고, 전문 단체들과 협력하여 선교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교회와 지역사회, 가정 그리고 청소년전문 NGO가 긴밀하게 연대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소년 전담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 선교 사역에 전심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10회기 학원선교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복음의 본질인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금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와 학원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교회와 노회, 그리고 학원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훈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평남노회
정기노회

평남노회 제203회 정기노회

평남노회 제203회 정기노회가 지난 10월 21일 새은혜교회(황형택 목사 시무)에서 열려, 노회장에 황형택 목사를 추대하는 등 임원을 개선했다.

개회예배는 박구병 장로(온누리교회)의 기도, 여전도회연합회의 찬양, 이상협 목사(영주교회)의 성경봉독, 송용섭 목사(위례비전교회)의 설교, 장로찬양단의 헌금찬양, 김수복 장로(우이동교회)의 헌금기도, 이형철 목사(우이동교회 원로)의 축도 순으로 드려졌다. 이날 개회예배 헌금은 군선교 지원금으로 전달됐다.

목사 238명, 장로 143명으로 개최한 이날 노회에선 부서와 위원회의 원활한 조직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3년조를 2년조로 변경해 달라는 임원회의의 현의가 규칙부로 이첩됐으며, 노회의 부서 순서에 따라 위원들이 이동하며 공천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4년마다 사업부서와 비사업부서를 교차시켜 공천하자는 안은 기구개혁위원회가 연구하도록 했다.

오전 회무에서는 총회 헌법개정안 수의를 진행했으며, 오후에 열린 목사 안수식에선 유상희, 주하늘, 임대봉, 주찬양, 김찬양, 정문식 씨가 안수를 받았다.

차유진 기자 / 기독교보

장로회
가을 야유회 및
진중세례식 참관

가을 하늘 아래, 군복음화를 향한 발걸음

9월 27일 청명한 가을 아침, 주님의교회 장로회는 올 초부터 계획했던 가을 야유회를 겸해 5사단 진중세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연천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지 합류 인원을 포함해 총 37명이 함께했으며, 2시간여를 달려 열쇠부대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인 이곳은 사전 개인정보 제출과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곳으로, 참가자 모두가 엄격한 출입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전망대에 오르자 8km 떨어진 북녘 마을과 북한군 초소, 그리고 발아래로 이어진 155마일 휴전선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교의 설명에 따르면, 눈앞의 백마고지 등 세 개의 고지를 놓고 6·25전쟁 당시 2만 명이상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불과 80km 떨어진 거리에서 수많은 생명이 바쳐졌음을 생각하니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점심식사 후 이번 일정의 핵심인 진중세례식이 열리는 상송교회(“항상 승리”)에 도착했습니다. 김성권·문은영 부부 목사님의 따뜻한 환영 인사를 받으며, 두 분이 20여 년 전 두 아들을 한낱한시에 잃은 후 군인들을 아들 삼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9중대 신병들이 세례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신병들을 맞이하기 위해 2열로 선 우리들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고,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들어오는 그들의 표정 속에는 기쁨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한혜원 자매의 찬양 인도 시간에는 훈련의 고단함을 이겨낸 신병들의 우렁찬 찬양이 울려 퍼졌고, 주님의 기쁨이 느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조병길 장로님의 기도, 고경임 권사님의 성경봉독, 특송 ‘십자가 군병들아’에 이어 배운환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군중 경험이 풍부한 배 목사님의 생생한 말씀은 신병들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세례식이 시작되었고, 여섯 분의 목사님과 여섯 분의 장로님이 성수를 들고 종대로 서서 무릎 꿇은 신병들에게 차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날의 예식은 마치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비록 어떤 신병은 시간이 지나 세례의 의미를 잊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날의 세례식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휴전선 너머 북한군 중 일부가 러-우 전쟁에 투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모두가 전쟁 없는 세상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9중대 신병들의 손을 통해 이 나라의 안보가 굳건히 서고, 그들이 제대하는 그날까지 무사히 지켜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복음이 북녘 땅에도 전해져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을 햇살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번 감동의 가을 야유회를 제안하신 황용환 장로님과, 군선교 사역을 수년째 헌신하며 이번 진중세례식도 완벽히 준비해 주신 복향수 안수 집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최영인 장로



중보기도부
수련회

가을 하늘 아래 드리진 은혜의 기도

가을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리났던 지난 10월 16일(수)에 주님의 교회 중보기도부는 이른 아침 네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가평 필그림 하우스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유난히 깨끗한 공기와 그림 같은 구름이 떠 있는 행복한 가을 하늘 아래, 180여 명의 기도자들이 한마음으로 은혜로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아름답다. 마음 깊은 곳까지 은혜롭다. 같은 믿음의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하니 더 아름답다.”라는 고백처럼, 수련회는 감사와 감동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오전에는 미리 도착한 찬양팀의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박민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중보자의 사명과 영적 자세를 묵상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천로역정 순례길’을 걸으며 우리가 천성으로 향하는 순례자임을 되새기고, 세상 속에서 영적 나그네로 살아가는 의미를 깊이 느끼는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강의에서는 류경민 목사님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림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어진 합심기도 시

간에는 “주님과의 사림이 없는 기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참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분열된 남북의 현실 위에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함께 간구했습니다.

주님의교회 중보기도부는 2003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2005년 3월 발대식을 가진 이후 현재 30개 팀, 250여 명의 사역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교회와 가정, 나라와 성도 개인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 중보기도실과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지는 기도는 예배와 선교, 병상 성도, 다음세대의 믿음 성장, 그리고 국가와 열방을 위한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중보기도자들은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영과 육을 살리는 기도자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신형섭 장로

안수집사회
함께 걷는 가을길

함께 걷는다는 것은 서로의 발을 맞추는 것

지난 10월 18일 토요일, 주님의교회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함께 걷는 가을길’ 행사가 양재천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의 이름처럼, 우리는 정말 ‘함께’ 걸었습니다. 사랑나무 부서의 발달장애인과 가족, 교사 26명을 비롯해 장애인부 싯딤나무, 에바다 장애인과 봉사자 등 약 150여 명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나누며 가을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행사 전 비 예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따뜻한 햇살은 구름 뒤에 숨어주어 오히려 걷기 좋은 날씨가 되어 주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단풍과 잔잔히 흐르는 물길, 그리고 그 속을 함께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자연 안에서 자유롭게 걷고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

간이었습니다. 사랑나무 가족들과 함께 걸어주신 엄인호 안수집사님, 싯딤나무와 에바다 식구들을 인도해주신 탁동원 안수집사님, 그 외에도 미리 답사하고, 간식을 준비하며, 등록과 데스크를 맡아 묵묵히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구분 없이 하나 되어 걸으며,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올가을, 우리는 양재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길 끝에 남은 것은 아름다운 풍경보다도 더 깊고 따뜻한 마음의 울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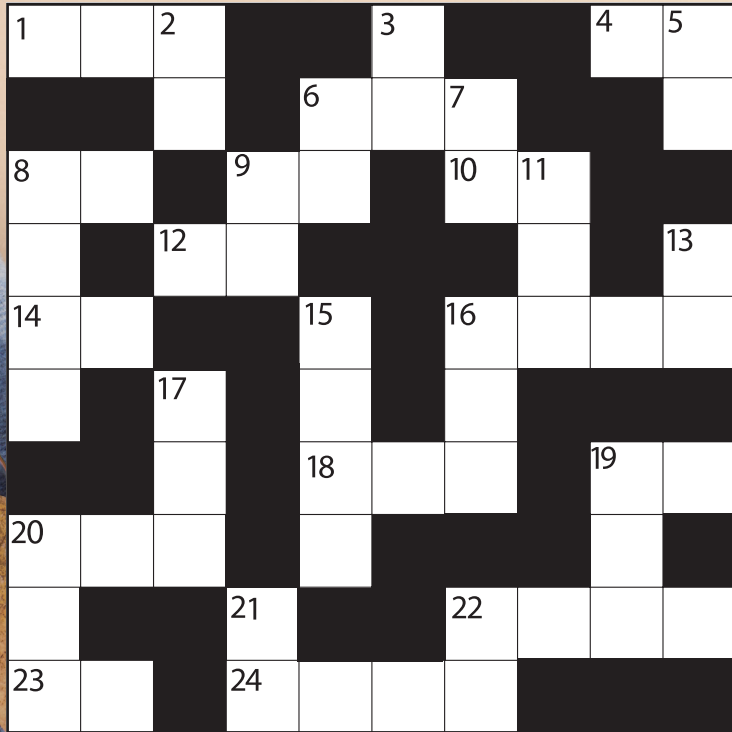
‘함께 걷는 가을길’, 그 이름처럼 주 안에서 함께여서 더욱 빛났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풀이
고린도후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여덟 번째 권인 <고린도후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려움 속에 있던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로, 서기 55년 무렵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고린도전서 편 정답



가로 힌트

- 어떤 사실의 확인이나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자리.
사회적 제도라기보다는 문학적 표현에 가까운 말이다. (고후 5:10)
-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존재.
흔히 흰옷을 입고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다. (고후 11:14)
- 고대 로마에서 중죄인을 벌하기 위해 사용하던 형틀.
예수님이 여기에 달려 돌아가셨다. (고후 13:4)
- 다른 사람이나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고후 1:3)
-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성경에서는 흔히 능력이나 자질을 뜻하기도 한다. (고후 9:15)
- 앞으로 다가올 어느 때.
보통 미래에 이루어질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쓴다. (고후 3:13)
- 사물의 이치를 충분히 알고 슬기롭게 처리하는 능력. (고후 1:12)
- 어떤 것의 모양이나 성질, 내용이 바뀌어 달라짐. (고후 3:18)
- '기름부음을 받은 자' 라는 뜻.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고후 1:1)
- 부모 가운데 남자인 분. '어머니'에 대응되는 말이다. (고후 6:18)
- 괴로움과 어려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초를 말한다. (고후 1:5)
-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지역. 성경 시대에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소아시아 반도의 서쪽 지역을 부르는 말이었다. (고후 1:8)
- 발칸반도 그리스 북쪽에 있던 지역.
알렉산더 대제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제국을 수립했다. (고후 8:1)
-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되풀이할 때 쓰는 말이다. (고후 3:1)
- 어떤 것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 짐. (고후 3:18)

세로 힌트

- 어떤 것의 구실이나 자리를 대체하여. (고후 5:14)
-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을 받아 말이나 물건을 전하는 사람.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는 "OO 보이즈"라는 아이돌그룹이 나온다. (고후 8:23)
-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에게도 12명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고후 1:1)
- 십삼과 십오 사이에 있는 숫자. (고후 12:2)
- 거짓으로 누군가의 모습을 흉내냄.
남에게 자신을 다른 누구라고 속이는 것을 말한다. (고후 11:13)
-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그 이유나 명분을 설명하는 것. (고후 12:19)
-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나 자비.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한다. (고후 1:2)
- 어떤 것보다, 약간 부족해 보이더라도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올 때 쓰는 말.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라는 노래에 "OOO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라는 가사가 있다. (고후 5:8)
- 사도 바울의 동역자.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러 간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한 사람이었다. (고후 12:18)
- 사도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 (고후 1:19)
- '그러하지'의 줄인 말. (고후 11:6)
- 에게해에 있었던 항구 도시. 고대의 도시국가 트로이에서 유래되었으며, 고대 로마 시대의 중요한 요충지였다. (고후 2:12)
-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서쪽 코린토스 만에 연한 해안도시.
지금의 지명은 '코린토스'이다. (고후 1:1)
- 나바티아 왕국의 통치자.
나바티아 왕국은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에 있었다. (고후 11:32)
- 거짓이 아닌 말. (고후 12:6)
- 보통 사람들이 가슴에 있다고 표현하는 어떤 것. 생각이나 감정을 뜻하기도 하고, 본래의 성격이나 품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후 3:3)

십자말풀이 506호 정답자: 정현정 집사(5교구)

십자말풀이와 함글함글 기사를 읽고 소감을 제출해주시는 분께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십자말풀이는 함글함글 지면에 답을 직접 쓴 사진을, 기사 소감은 아래한글이나 워드로 A4 1장 이상 분량으로 작성한 파일을 함글함글 메일(pchamletter@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는 이름, 직분, 교구, 전화번호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섬김과 나눔
생명사랑 이웃사랑
추석 명절 음식 나눔

사랑을 부치다, 마음을 나누다

지난 10월 2일(목) 새벽 6시, 김화수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2025년도 추석 명절 음식 나눔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송파구 관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의교회 여전도회에서는 행사 전날부터 재료 손질에 힘을 모으고, 행사 당일에는 100여 명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참여하여 네 가지 종류의 전을 정성껏 부쳤습니다. 준비된 전은 송편과 식혜와 함께 포장되어, (사)섬김과나눔이 수탁 운영 중인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의 손을 통해 마천동과 위례동 지역의 독거 어르신,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중장년 남성, 한부모 가정, 탈북민 가정, 지역 경로당 등 총 400가구에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마천1동과 마천2동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명절의 정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여전도회원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모여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눔의 행사가 계속 이어져, 주님의 사랑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선화 관장 /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교회일정

- 11/2 (주일) 성찬주일
- 11/5 (수) 교구 연합 수요기도회 (4교구)
- 11/8 (토)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 11/9 (주일) 정기당회
- 11/15 (토) 양육클래스, 세움학당 종강

알립니다

1. 후문 출차 안내

시간: 오전 10:00 ~ 오후 1:00

문의: 유신식 안수집사(010.5219.3902)

* 후문은 출차만 가능(도보 절대 금지)합니다.
주차안내부의 안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사랑의 헌혈행사

일시: 10/26(주일) 오전 9:00 ~ 오후 4:00

장소: 본당 앞 헌혈차량(신분증 지참, 예약 필수)

사전예약처: 이성규 안수집사(010.7773.7774)

모집합니다

1. 주방봉사자

시간: 8:00 ~ 10:00 (1부 국수팀)

12:00 ~ 2:00 (마무리팀)

문의: 임익수 장로(010.3758.6162)

2. 임마누엘(4부) 찬양대원 모집

문의: 이성규 안수집사(010.5503.5512)

3. 결혼예비학교 제24기 모집

모집: 11/2(주일)까지 / 회비: 4만원(커플당)

대상: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결혼 후 1년 이내)

기간: 11/9~11/23(주일, 오후 3:00~6:30)

신청: 이영원 전도사(010.3954.7208)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사역박람회

· 2025 ·

11.16 (주일)

8AM-2:20PM

1층 로비

이런시도 주수할 것은 없고
일꾼이 필요하니 그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누가복음 10:2

제 24기 결혼 예비학교

2025. 11. 9 ~ 11. 23 (3주간 매 주일),
오후 3시 ~ 6시 30분 / 주님의교회 3층 초등부실

대상: 결혼을 앞둔 커플 또는 신혼부부
회비: 4만원 (커플 2인 기준)

주최: 주님의교회

1주차 11월 9일

알: 둘이 하나 /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결혼과 가정

부부의 성(性)과 감정교류 / 부부의 성(性)에 대해 알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

2주차 11월 16일

다른 듯 다른 우리 / 다른 듯 서로 다른 부부의 공통점과 차이점

말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 / 부부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훈련

3주차 11월 23일

가난한 듯 부요한 우리 / 성경 속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재정 관리법

토론회: 결혼에서 살아남기 / 결혼 생활에 관한 실질적인
고민과 질문에 답하다.

문의: 이영원 전도사
010-3954-7208

신청 QR

QR

신앙생활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와 역할을 주셔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사역은 단순히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 영광스러운 동참의 자리입니다. 사역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집니다. 이번 사역 박람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발견하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